

# 성경적 경제학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구성요소, 분류 및 위상에 대한 제안

황희영(영산대학교)

## I. 문제제기

만약 성경적 경제학을 기독교경제학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다면, 김승욱(2008)에 의하면 성경적 경제학의 범주에는 대략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한다. 먼저 성경적 경제학의 존재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로부터 경제정의, 경제윤리를 중심으로 기독교경제학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기존 경제학을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보다 현실 설명력도 있으면서 기독교의 가치를 잘 나타내고자 하는 그룹이 있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근거로 새로운 경제학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까지 있다.

본 논문은 성경적 경제학은 무엇보다 성경을 근거로 경제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 탐색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sup>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성경은 시대에 관계없이 우리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리를 담고 있다고 믿는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바로 세우는 데 유익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딤후 3:16-17). 실제로 문헌조사에 의하면 기독교경제윤리 한 분야만 보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많은 성경적 경제 원리들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현대 경제학의 논의를 성경과 통합하려는 시도는 유익하지 않다.<sup>2)</sup> 성경의 각 책은 비록 어떤 한 시대적 특성을 가진 저작이지만 그 내용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진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이 최근 이백여 년 사이에 만들어진 논의를 위해 존재한다면 이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러므로 경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담은 원리들을 일종의 원형(prototype)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원형의 체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원형으로 하여금 현대 경제학을 비추고 해석하도록 해야 그 반대는 곤란하다. 달리 말하면 성경적 경제학의 탐색은 현대 경제학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성경적 경제학은 실증적 방법론이나 인본주의적 및 유물론적 관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실체와 질서를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인간 중심의 해석 및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학문의 뼈대가 되는 인식론이나 방법론이 무신론적이거나 자연법적 질서만을 인정한다면 그 학문을 성경적이라고 이름붙일 수 없다.

1) 앞서 말한 다섯 가지 관심사의 범위의 마지막 견해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2) 한 극단적 예를 들면 효용극대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사결정 방식을 추론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시장자본주의로 대표되는 현대 경제학의 운영의 기초는 인간의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이 사회 ‘과학’으로서 설명과 예측력을 가지도록 구조화된 것은 본질적으로 경제를 인간의 지식체계 내에서 설명하게 하고, 또한 경제의 흐름이 통제하는 자의 뜻 안에 있도록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sup>3)</sup>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흐름이다. 그렇다고 시장자본주의를 뒤집어엎자는 말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sup>4)</sup>

만약 위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먼저 성경적 경제학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종의 큰 틀이 확립되면 기존의 모든 연구들은 그 틀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발견하게 된다.

현재 시점에서 관찰되는 많은 현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가운데 있다.<sup>5)</sup> 시장자본주의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허락하신 하나의 시스템이다.<sup>6)</sup> 경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먼저 그 원리에 따라 움직이면 궁극적으로 현대 경제 시스템이 성경적 원리에 순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될 것이다.<sup>7)</sup>

우리가 이것에 동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경적 경제학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building blocks)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공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탐색하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조사를 위한 경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길이다. 첫째, 성경 말씀 목상이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경제를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목상해왔다. 목상에는 경제에 관한 성경의 직접적인 언급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이 이 길을 거쳐 갔다. 둘째,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관된 성품으로부터 유추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인쇄된 성경적 경제학 관련 문헌들로부터 찾을 수 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의 학문을 통해 하나님께

3)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을 때 지금의 금융위기와 같은 오류(error;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대하는 결과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4)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부정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다만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그 모범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다.

5)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complete will)과 허용하신 뜻(permissive will) 사이의 구분은 민수기 22장에서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전하신 첫 번째 뜻과 발람의 의지를 반영하여 구한 두 번째 뜻 사이의 차이를 참조하십시오.

6) 본고에서는 현대 경제학에 관한 논의를 시장자본주의에 한정시킨다.

7) 이러한, 일견 거대하게 보이는 시도가 전에도 없었던 일은 아닌 것 같다. 헨리 조지(George, 1879)는 이 분야의 선구자와 같다. 그는 이미 130년 전에 토지제도를 토지공유제 및 토지가치세제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라니(Polanyi, 1977)는 시장자본주의의 허구성에 대해 논하면서 경제의 본질은 가격 기능을 중심으로 균형에 도달하려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교환이 존재하는<sup>1)</sup> 사람의 살림살이(livelihood)라는 개념으로 재구조화 하고자 했다. 이윤재(2004)는 성경적 경제학을 “창조, 안식, 만나, 공휴의 경제”라는 4대 영역으로 재구조화 하고자 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도이다. 또한 헤이(Hay, 1996; pp. 82-86)는 경제에 관한 성경적 원리를 8가지로 정리했다.

8) 이윤재(2004)의 시도가 매우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안식, 만나, 공휴”이라는 성경적 원리들을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개의 현대적 경제 원리에 묶고 있어서 본고의 필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본고의 문제제기에서 지적한 문제점이다.

영광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해왔으며 그 연구들의 핵심 내용으로부터 성경적 경제학의 요소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의 경제적 경험에서 찾는 길이다. 오랜 동안 인류는 하나님을 믿든 혹은 안 믿든 그들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체험을 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일도 우연한 것이 없다면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도 하나님의 경제에 관한 원리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다음 장에서는 그 동안 필자가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보자.

## II. 성경적 경제학의 가능한 구성요소들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의 경제 원리들에 관한 인식의 구성요소들을 다음의 표로 정리했다.<sup>10)</sup> 이 표를 통해 필자가 성경적 경제학의 새로운 인식 틀을 제안하는 것의 의미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가 아니라 그 내용들을 분류하는 체계와 이 분류 체계를 성경적 경제학의 구조로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현대 경제학의 분류 체계 및 구성요소를 대체하자는 데에 있다. 예를 들면 경제학을 가르치기 위해 미시-거시의 구조가 아니라 은혜론, 성경적 소득론, 정의론, 성경적 의사결정론 등과 같이 제시하자는 것이다.

주요 영역	경제에 대한 성경적 인식들	인식 원리
기본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부는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다.</li> <li>· 하나님의 경제는 영(spirit)에 속해 있는 반면 세상의 경제는 육(flesh)에 속해 있다.</li> <li>·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 대한 축복</li> <li>·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li> <li>·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li> <li>· 물질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함</li> <li>·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li> <li>·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심</li> <li>·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li> <li>·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li> <li>·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정신</li> <li>· 사유재산의 인정</li> <li>· 제도적 질서에 대한 존중</li> <li>· 불순종과 죄의 결과는 궁핍과 경제적인 황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조주 하나님</li> <li>피조물로서의 정체성 - 예배자로서의 부르심</li> <li>삶의 우선순위와 선택</li> <li>화평케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li> <li>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li> <li>공동체를 보전하시는 하나님</li> <li>여호와 살름</li> <li>여호와 설케누</li> </ul>

9) 예를 들면 최근의 금융위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탐욕이 원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10) 그러나 이 표는 단지 필자의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다.

11)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를 거저 주신다는 의미이다. 엘룰(Ellul, 1950)에서 제시되었고 힐·피츠(Hill & Pitts, 2001)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의 반대 개념은 매매의 법칙이다.

은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재정의 위기에서 구하신다.</li> <li>·나눔으로써 흑암의 권세를 꺾음</li> <li>·심고 거두기</li> <li>·의의 열매를 위한 씨앗 뿌리기</li> <li>·배가의 법칙</li> <li>·나눔의 축복: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li> </ul>	<p>거저 주시는 하나님 거저 주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p>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거저 주신다.</li> <li>·만나를 주심</li> <li>·재물을 얻는 능을 주심</li> <li>·필요를 채워주심</li> <li>·자족하는 삶</li> </ul>	<p>은혜의 법칙<sup>11)</sup>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p>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죄의 대가이나 저주는 아님</li> <li>·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li> <li>·노동의 대가로 땅의 소산을 얻음</li> <li>·일하는 소의 입에 멩예를 씌우지 않음</li> <li>·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li> <li>·소명으로서의 직업</li> <li>·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li> </ul>	<p>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함 그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p>
지혜와 창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심: 오홀리압과 브살렐</li> <li>·하나님은 기적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심</li> </ul>	<p>성령은 창조의 영, 지혜의 영</p>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나님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심</li> <li>·말씀에 순종</li> <li>·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li> <li>·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의사결정하기</li> </ul>	<p>성령의 인도하심 순종 하나님의 음성 듣기</p>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속을 지킴</li> <li>·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식을 취하지 말라</li> <li>·정직한 거래(추를 속이지 않음)</li> </ul>	<p>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p>
재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지기의식</li> <li>·도시를 다스릴 권세의 위탁</li> <li>·청지기의 책임성 (결산)</li> <li>·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li> </ul>	<p>정체성 - 소유를 맡기심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의무 노예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li> <li>· 온전한 심일조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li> </ul>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li> <li>· 백성들에게 가족을 위해 토지를 기업으로 주심</li> <li>· 희년</li> <li>· 토지 무르기</li> <li>· 토지의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li> <li>· 토지의 안식년</li> </ul>	<p>토지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p>
생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의 풍요로움</li> <li>·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국가적 생산력이 달라짐</li> <li>·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번성함</li> </ul>	<p>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로움 열매 맺는 삶</p>
국가의 통치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허락하심: 조세</li> <li>· 통치기관으로서의 국가의 역할: 백성의 필요를 채움</li> </ul>	<p>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왕을 통한 통치를 허락하심</p>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주라</li> <li>· 추수 때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 남겨 두라</li> <li>·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라</li> </ul>	<p>구속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p>

<표 1> 성경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제 원리 인식을 위한 분류와 구성요소들

<표 1>이 만들어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경적 경제에 관한 요소들을 모았다. 이 요소들은 구체적인 하나의 규범에서부터 원리까지, 그리고 기본 전제에 관한 것부터 국가에 관한 것까지 이른다. 그런 후 구성요소들과 원리를 구분하였다. 원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높은 단계의 원리들인데 다수의 구성요소들을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영역을 분류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토지나 노동 혹은 재정 등의 내용에 관심을 가진다.

위 표에 제시된 구성요소 및 원리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적 경제학의 과제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탐색이라기보다는 재구조화에 더 밀접하다고 하겠다. <표 1>을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칸을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동할 수 있고 소득이 들어온다. 소득에 의해 거래가 일어나고 또 생산이 유발된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소득을 관리하고 결산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 과정

에서 우리는 십일조와 헌금을 통해 그 돈이 다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하는 동시에 나눔으로 은혜를 유통시키면서 정의를 세운다. 토지는 하나님이 한 가족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삶의 터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뜻 안에 있을 때 생산력은 커지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국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서 우리는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내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하여진다.

둘째 칸에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경제에 관한 성경적 인식의 조각들이다. 출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성경 묵상과 그 동안의 성경적 경제에 관한 많은 연구들의 결과에서 왔다.

이 중 몇 가지만 특별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백성들에 대한 국가의 통치를 허락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요구를 허락하시고 대신 그들이 곡식과 포도와 양떼 중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왕에 의해 다스려질 제도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도록 하셨다(삼상 8:11-17).

국가적 생산력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려주심으로 썩(신 11:14) 소출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늘 문을 닫아 비를 그쳐 하늘을 낮추려, 땅은 철처럼, 그리고 모래로 비처럼 만드신다고(신 28:23-24) 한다. 이것을 두고 필자는 성경적 경제의 생산함수는 영적 함수라고 말한다.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식양은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오홀리압과 브살렐(출 36:1)은 그것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졌다. 정보사회에서처럼 창의력과 지혜가 필요한 때에 성령의 지혜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의사결정 한다는 것은 필자가 신고전과 경제학의 공리주의적 합리성에 근거한 소비자 선택이론(효용극대화)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자녀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이다. 문헌조사를 통해서도 발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의사결정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쓴다는 사실이다.

셋째 칸에는 둘째 칸의 구성요소들의 기저에 있는 원리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 원리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며 보살피시는 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기를 바라신다.

### III. 현대 경제학의 인식 원리와 구성요소들

그러면 성경적 경제학과 달리 시장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대 경제학은 어떤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현대 경제학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해보도록 하자. 성경적 경제학과 현대 경제학을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을 받아온 현대 경제학의 특징이 어떠한지, 어떻게 성경적 경제학으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경제학의 분류 체계를 보고자 한다면 먼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문의 분류표가 한 예가 된다. 혹은 AEA에서 출간되는 American Economic Review의 5월호(Proceedings)를 보면 그 해에 학자들의 연례 미팅이 어떤 분과를 중심으로 어떤 논문들이 발표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분과의 이름이 곧 연구 분야와 중심 주제를 나타낸다.

얼마나 상세하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현대 경제학에는 대체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노동경제학, 금융경제학, 국제경제학, 공공경제학, 경제철학·사상·역사, 그리고 기타 연구 영역들이 있다. 이 영역들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원리들의 탐색을 통해 현대 경제학의 인식의 틀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sup>12)</sup>

주요영역	세부 영역	인식의 구성요소들	인식 원리
기본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리주의</li> <li>·합리주의</li> <li>·한계주의</li> <li>·시장중심의 교환 체제</li> </ul>	더 많은 소유의 추구 시장의 힘에 순응 자기중심적 자아 비용 중심적 사고 매매의 법칙
미시경제	수요공급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공급의 법칙</li> <li>·경쟁적 시장의 조건</li> <li>·가격결정 메커니즘</li> <li>·시장가격에 의한 교환으로 최적 자원배분</li> <li>·수요와 공급의 탄력성</li> </ul>	경쟁적 태도 힘의 균형 시장의 가격 신호에 반응 시장에 의한 욕구충족의 최적화
	소비자선택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계효용체감</li> <li>·효용극대화</li> </ul>	더 높은 만족의 추구 극대화(parametric maximization)
	생산자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계생산성체감</li> <li>·비용곡선</li> <li>·이윤극대화</li> </ul>	자원의 희소성 더 많은 이윤의 추구 비용 중심적 사고
	시장실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점</li> <li>·외부성</li> <li>·공공재</li> </ul>	정부의 개입 허용
거시경제 <sup>13)</sup>	국민소득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주체</li> <li>·국민총생산</li> </ul>	시장 중심의 순환적 경제 시스템

12) 이 표 역시 필자의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앞으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13) 보통은 노동, 금융 및 재정을 거시경제에 포함시키지만 여기서는 별도로 표시하였다.

		·소득과 지출에 의한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	
	성장이론		
	경기순환 및 변동		자연현상으로서의 규칙성
	경제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통제
노동	노동시장이론	·노동의 수요와 공급 ·임금결정	생산요소로서의 노동 거래 대상으로서의 노동
	고용 및 실업 정책		실업률의 통제
	노동관계		
	산업관계		
금융	화폐(통화)이론	·화폐의 속성	
	이자율결정이론	·화폐의 수요와 공급	
	포트폴리오이론	·다양한 금융자산 ·자산의 위험과 수익률 사이의 균형 ·할인율: 미래가치의 현재화	위험은 회피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원함
	금융제도와 기관	·신용창출 ·레버리지 ·금융상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위험관리	·수익률과 불확실성 사이의 균형	불확실성은 회피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원함
공공재정	조세	·다양한 성격의 조세들 ·징수 체계와 관리	국가의 역할
	예산		
	공공지출	·비용편익분석	비용 중심적 사고
토지	지대론	·지대의 발생 ·토지의 생산성 ·입지경쟁	생산요소로서의 토지 수익창출

<표 2> 현대 경제학의 분류 체계와 구성요소 및 경제 원리들

위 표에서 첫째 칸에는 현대 경제학의 주요 영역을 구분했고<sup>14)</sup> 둘째 칸에는 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중심 이론 및 주요 내용을 써보았다. 셋째와 넷째 칸에서는 현대 경제학의 인식의 틀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원리들을 간단히 정리했다.

<표 2>를 살펴보면 시장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대 경제학은 모든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환원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품, 노동, 자본, 지식 및 토지 모두 거래와 교환의 대상이다. 일단 시장이 형성되면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을 형성하는 거대한 힘이 작용한다. 대부분의 개인은 이 힘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만든 시장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 때 한 개인은 시장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만족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호 경쟁이 기본 원리가 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함으로써 그 과정을 자신의 삶 속으로 내면화한다. 시장은 그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는데 그는 모든 것을 비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비용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최대화시킨다. 즉 엘월이 말한 매매의 법칙이 인식의 원리가 되는 것이다.

최대의 만족과 이윤을 추구하도록 하는 인식은 오래 전부터 한계주의가 시장을 통해 일종의 도그마(dogma)로 만들었다.<sup>15)</sup> 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자기중심적 자아에서 발현되는 이기심이 탐욕이라는 죄악으로 발전하여 부정적인 집단적 흐름의 형성을 규제하는 장치가 시장에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계주의 사고체계 내에서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탈 윤리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의미에 대하여서는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비용중심의 사고방식 외에 거의 아무런 평가를 받지 못한다. 시장에서 노동은 철저하게 비인격화되어 있어서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찾기 어렵다. 결국 상품과 노동, 자본과 토지 등 모든 것이 시장에서는 오직 만족과 이윤 및 수익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이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거래의 대상일 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정체성,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의로움, 삶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 III. 새로운 인식으로의 방향 제안

만약 성경적 경제와 현대 경제 시스템이 같은 뿌리 안에서 양립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성경적 경제학은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적 경제학이 현대 경제학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 1. 인식체계의 분리

현대 경제학은 학문적으로 ‘과학적’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사회 현상을 함수로 표현했을 때 그 함수에 내포된 변수를 매개로 한 인과론적 설명을 지향하고 있다. 즉 모델화(modelling)를 통한 현상의 설명과 예측으로 과학적 논증을 하고자 한다.<sup>16)</sup> 이러한 체계는 현상을 지적으로 인식 및 이해하고 또 현상에 대해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 현대 경제학의 인식 모델은 현상에 대한 판

14) 국제교역에 관한 내용과 경제철학, 사상, 역사 및 기타 영역은 다루지 않았다.

15)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도그마라고 표현했다.

16) 이것은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물리학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던 과거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흐름은 강하다.

단의 기준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 동안 교육을 통해 매우 강력하게 규범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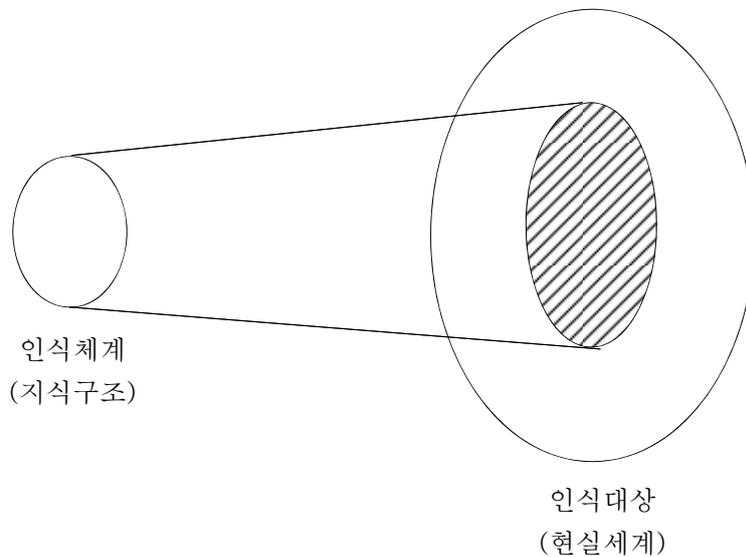
반면 성경적 경제학은 그릇 그 자체보다 거기에 담겨야 할 내용의 핵심 요소는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된 원리다. 성경에는 경제를 다루는 많은 원리들과 아울러 율법이 있다. 성경에 내포된 경제 원리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개인-기업-국가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명령에 가깝다. 그러므로 성경적 경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순종하고 적용하는 것이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인식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적 경제가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찾으려고 할 때, 즉 '기독교경제학'을 정립할 때 하나님의 원리와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 '속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설명-예측 체계로서의 과학적 (scientific) 속성을 택할 것인가라는 선택에 직면한다.

우리는 성경적 경제학은 마땅히 하나님의 원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경제학과 같은 실증적 토대 위에서는 설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 경제학의 인식 체계에 성경적 경제학을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병행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를 하더라도 사회 현상의 인식과 이해 능력에는 여전히 심각한 한계가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성경적 경제학은 현대 경제학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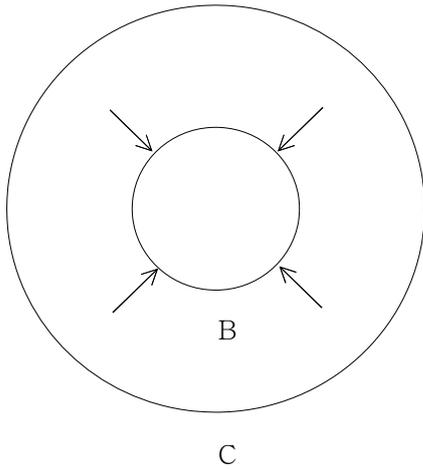
인간은 사물을 이해할 때 모든 현상을 자신만의 경험만으로 다 알 수 없으므로 망원경의 렌즈처럼 작용하는 독특한 인식 체계를 가지고 본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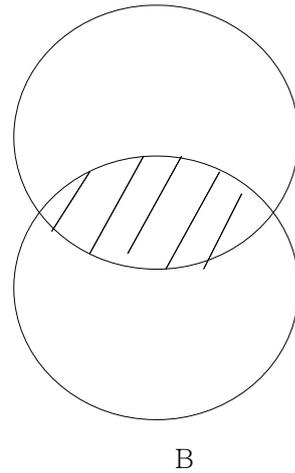
<그림 1> 인식체계와 인식대상 간의 관계

위 그림에서 왼쪽의 작은 원은 인식체계이며 오른쪽 원은 인간이 이해하고자 하는 인식대상으로서의 현실세계를 의미한다. 오른쪽 원 안의 빗금 친 부분은 현실세계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사회와 자연 현상은 매우 광대하므로 인간의 지각과 인식은 당연히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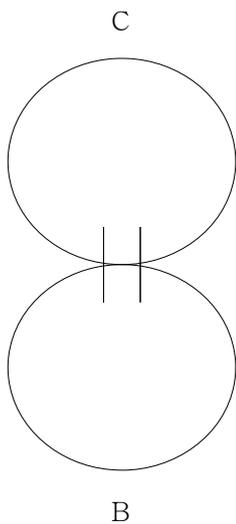
기존의 현대 경제학의 인식체계를 C (current economics)라고 하고 성경적 경제학을 B (biblical economics)라고 표현하자. 위의 <그림 1>에서 표현한 방식을 이용하면 김승욱(2008)에서 유형화하고 있는 성경적 경제학의 상대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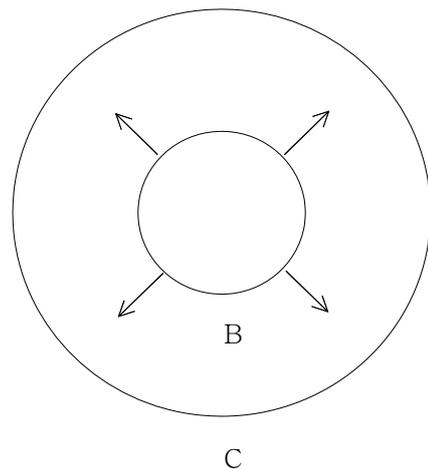
<그림 2> 성경적 경제학이 독립적 목적과 의미를 가지지 못한 경우



<그림 3> 성경적 경제학이 윤리, 사회 정의 영역에서만 현대 경제학으로 침투한 경우



<그림 4> 성경적 경제학과 현대 경제학이 병행하는 상호 보완적 경우



<그림 5> 성경적 경제학이 별도의 학문적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현대 경제학을 대체할 경우

<그림 2>에서 <그림 5>까지의 그림들은 <그림 1>의 왼쪽 편에 있는 망원경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sup>17)</sup>

만약 성경적 경제학이 사회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림 2>, <그림 3>, 그리고 <그림 4>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의 경제학 체계가 사회 현상 설명력을 결여한 것과 같이 이들의 한계도 분명할 것이다. 즉 <그림 1>의 오른쪽 원에서 빗금 친 부분은 여전히 전체 현상의 일부만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 능력의 근본적 한계는 현대 경제학이 자연법적 질서 내에 있기 때문이다. 현상 설명 과정에 영적인 면과 영성에 결부된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 이들을 과학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최근 심리적인 면을 과학적인 해석과 모델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영적인 면은 다룰 수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다고 믿는다. 그 중에는 자연법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적 속성이나 초월적 속성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 성경적 경제학은 물론이고 성경적인 다른 학문 체계도 그 존재 의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마이어스·지브스(Myers & Jeeves, 1987)는 기독교 관점의 심리학에 대해 행동, 발달, 지각, 학습, 언어, 동기와 정서 등의 여러 영역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왜 인간이 “영적 존재이며, 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각과 인식 및 감정과 행동”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영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sup>18)</sup>

사르밧의 과부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은 것,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의 집에 모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된 사건, 오병이어 사건, 베드로가 건져 올린 153마리의 물고기 등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자원은 희소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사건들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현대 경제학의 ‘제약 조건 하의 극대화’는 자연법의 질서 내에 있는 현상은 설명 가능하지만 영적인 해석이 가해져야 하는 “반복된 역사적” 사건은 다룰 수 없다.

기독교경제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칭지기의식(stewardship)’은 “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재정을 관리한다.”는 말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데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가진 현대의 기업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핵심 이슈이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모세가 행한 일과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행한 일을 종합해보면 그들이 내린 모든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한다.”라는 것인데 성경적 경제학이나 정치학이 만약 자연법적 통제 하에 있다면 이것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학을 성경적인 학문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자연법적 질서 하에 있어야만 하는 기존의

17) <그림 2>와 <그림 5>의 원 안의 화살표는 성경적 경제학과 현대 경제학이 서로 침투하는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바깥으로 향하는 원은 성경적 경제학이 궁극적으로 현대 경제학에 침투하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용될 것이라는 뜻을 가진다.

18) 이들은 심지어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까지 서술한다 (Myers & Jeeves, p. 84; 강조는 필자).

학문 인식체계로부터 일단 분리되어야만 한다. 성경적 경제학에 자연법적 인과론에 기초한 ‘과학적’ 인식이 주된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만 한다. 성경적 경제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먼저 인식의 범위와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야 한다.

## 2. 학문의 목적과 의의의 분리

위와 같은 인식체계의 분리가 일어난다면 그 다음은 성경적 경제학의 목적과 의의를 현대 경제학의 목적과 의의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대 경제학은 인간이 경제를 자연법적 질서 하에 두면서 설명하고 예측하는, 그리고 동시에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다고 앞서 말했다. 통제(control)란 미리 설정해 놓은 정상적인(normal) 혹은 바람직한(desirable) 범위 내에 현상적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의 과학적 학문의 목적과 의의를 동전에 비유했을 때 설명과 예측이 한 쪽 면이라면 통제의 욕구는 그 반대 쪽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적 경제학의 목적을 사회 현상의 설명과 예측보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에 먼저 두는 것은 어떤가? 만약 우리가 경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실제로 가르치고, 나아가 생활에 적용하면서 경제 활동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적 경제학의 의의가 될 수는 없는가?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현대 경제학의 지식 체계를 다루는 문제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가치가 지배적인 세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가운데 있다. 성경적 경제학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동시에 자연법 질서 역시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르밧의 과부는 엘리야가 기도하여 비가 멈춘 기간 동안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는 어떤가? 비가 내렸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자연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쳤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군중들은 바로 그 때에는 엄청난 자원의 배가를 경험했지만 그 이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다시 자기 소유 내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어심을 알고 인정하는 한편 동시에 스스로 농사를 짓고 소유를 관리하는 일도 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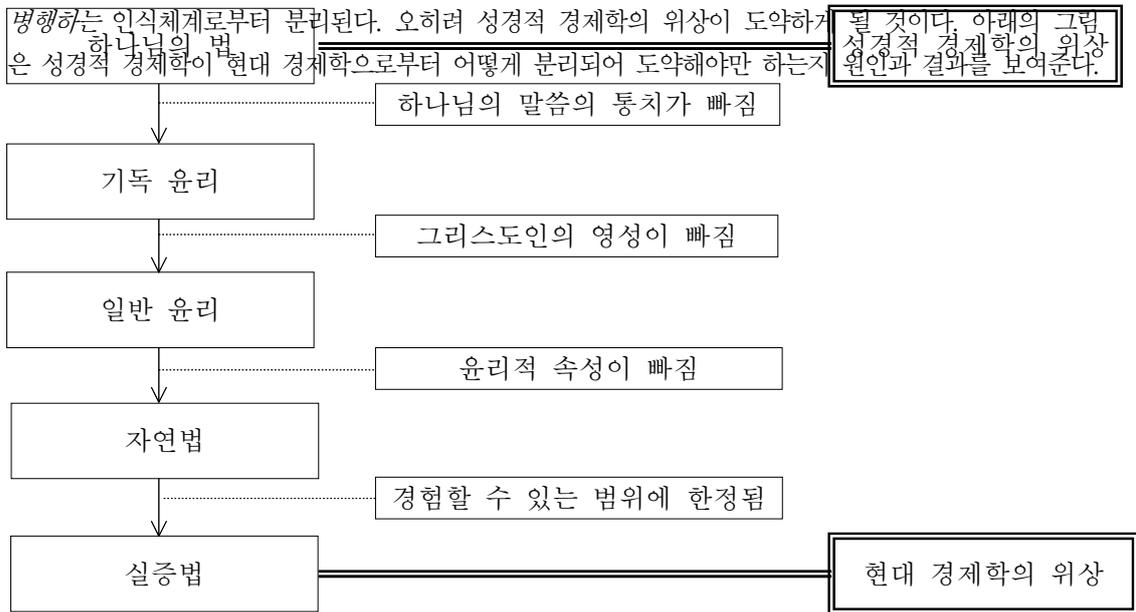
만약 그리스도인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성경적 경제학의 학문적 목적과 의의는 인간의 경제활동과 그를 위한 인식체계에 하나님의 통치(Dominion)를 선포하는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는 것,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 3. 학문적 위상의 분리

성경적 경제학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면 성경적 경제학의 학문적 위상 또한 현대 경제학과

---

19) 다만 우리에게 사건의 속성을, 특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요소들을 가려내는 약간의 분별력은 필요할 것이다.



<그림 6> 하나님 법의 통치로부터의 단절 과정과 성경적 경제학의 위상의 회복

크라벤담(Krabbendam, 1989)은 하나님의 영적인 측면이 어떻게 경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제 의사결정에서 먼저 영적인 면과 인본주의적인 면이 서로 양극화 된 상태로 분리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서 자연법으로의 전환, 그리고 자연법에서 실증법으로의 전환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단절의 과정이 생겼다고 말한다.<sup>20)</sup>

우리는 크라벤담의 논의에 몇 단계를 더 추가하여 <그림 6>과 같이 표현하였고, 단절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공동체 내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에 거역하는 새로운 인식이 들어왔다. 이러한 인식은 인간의 뜻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동기 위에 있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므로 인간의 자기중심적 자아를 강화시킨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리를 일으킨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율법이 공동체를 지배했다.<sup>21)</sup>

하나님의 아들로써 예수님이 오신 후 세계는 복음이 전하여지는 시기였으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20) Krabbendam(1989), pp. 136-139 참조.

21) 대표적인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율법주의자들의 시대이다.

형성되는 시기였으나 르네상스를 맞으며 인간의 사고체계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 대신에 인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졌다. 따라서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버리고 인본주의적 윤리의식이 점점 확대되었다.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광범한 지식이 축적되고 분류되었다. 만물의 창조주의 의식 대신에 자연을 탐구하고 분석하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급격하게 확대되어 자연법적 질서의 원리들을 규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덕 윤리가 쇠퇴하고 과학적 지식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다.<sup>22)</sup>

마지막으로 산업화 시대에 이르러 인간의 과학적 지식은 기계문명의 발달을 낳았고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었다. 사회 발전 과정은 특히 경제 영역에서 자연법적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이 경험하게 된 규칙과 현상을 규범화하여 사회 지배(통치)의 모델로 만들었다. 현대 경제학의 위치는 위 그림에서와 같이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성, 도덕성 등이 모두 제거된 학문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현대 경제학이 소위 ‘과학’이 되기 위해 포기한 것이다.<sup>23)</sup>

크라벤담은 이와 같이 현대의 경영(경제)이 하나님의 영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생기는 단절을 ‘정신분열증’에 비유하고 있다. 성경적 경제학의 위상이 현대 경제학과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법의 수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를 질병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성경적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 수준으로 그 위상이 회복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 IV. 결론

우리는 앞에서 성경적 경제학의 새로운 인식을 위한 구성요소 및 원리들을 제안했고 시장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대 경제학의 인식의 틀이 어떤 것인지 보였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원리가 없고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고 크므로 성경적 경제학이 어떻게 현대 경제학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지 방향을 제안했다. 이러한 분리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경제는 영(spirit)에 속했고 세상의 경제는 육(flesh)에 속했기 때문이다.

현대 경제학의 기본 인식은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힘이 지배하는 일종의 자연법적 질서의 공간으로 보면서 인간이 더 많은 만족과 수익을 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리고 자기중심적 자아로부터 나오는 이기심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성경적 경제학이 의미를 가지려면 현대 경제학의 체제와 병행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둘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통합하려는 시도는 무익하다고 본다.

성경적 경제는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의 주체인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dominion) 하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

22) 자연법적 질서 내에서 모든 현상을 규명하겠다는 인간의 의도는 최근 인간의 모든 의식과 작용을 뇌 속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현상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다.

23) 그 결과 현대 경제학은 이 요소들과 불일치하고 있다.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해왔으나 본질적으로 무익하다고 할 수 있다.

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신앙과 경제를 일치시키는 당위성에 대해 공감한다. 이와 대립되는 현대 경제 시스템의 인식체계 및 원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단지 일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허용하신 뜻 가운데 있다.

두 경제 체계는 매우 치열하게 대립되어 있고 상호 침투하는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성경적 경제학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새로운 인식 틀을 위한 분류체계와 구성요소들, 그리고 가져야 할 학문적 위상은 앞에서 제안했다.<sup>24)</sup> 구체적인 과제가 있다면 첫째 위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 둘째 그 체계에 따라 성경적 경제학을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 셋째 신앙과 경제생활이 일치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거기에 필요한 훈련 도구들을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제로 성경적 경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들에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라는 큰 과제가 요구될 것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승욱 (2008), <한국 기독교경제학의 유형과 발전 방향>, 신앙과 학문, 제13권 1호, pp. 9-44.
- 이운재 (2004), 『성경속의 경제학』, 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 황희영 (2008), <성경적 경제학의 재건축을 위한 시론>, 로고스경영학회, 제6권 제1호(Vol. 13), pp. 129-145.
- Beckett, John (1998), Loving Monday, IL: Downers Grove, IVP.
- Ellul, Jacques (1950), L'homme et l'argent: nova et vetera, 2e édition complétée, 양명수 역(1991), 『하나님이나 돈이냐』, 안양: 대장간.
- George, Henry (1879), Poverty and Progress, 김윤상 역(1997), 『진보와 빈곤』, 서울: 비봉출판사.
- Hay, Donald A. (1989), Economics Today: A Christian Critique, 전강수(외) 역(1996), 『현대 경제학과 청지기 윤리』, 서울: IVP.
- Hill, Craig and Earl Pitts (2001), Wealth, Riches and Money: God's Biblical Principles of Finance, 허령 역(2004),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 서울: 예수전도단.
- Krabbendam, Henry (1989), <사업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in Richard C. Chewning (ed.),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Foundations, 로고스경영연구원 역(2005), 『성경의 경영원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Myers, David and Malcolm A. Jeeves (1987), Psych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박원기 역(1995), 『신앙의 눈으로 본 심리학』, 서울: IVP.
- Polanyi, Karl (1977), The Livelihood of Man, 박현수 역(1983), 『사람의 살림살이 I, II』, 서울: 풀빛.

---

24) 이 구성요소들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은 본고에서 빠져있다. 다음 기회에 채워질 것을 기대한다.